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Resource Transfers from Adult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고 선 강*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oh, Sun-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s and economic resources on financial transfers, caregiving, and time donated from middle-aged adult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Analyzing data from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which provides long-term observations of financial reciprocity and recent reports about elder care, the current study finds strong positive effects of prior 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s in the models of caregiving and time; which indicates the importance of reciprocity.

In terms of determinants of resource transfers, the finding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uggest that the economic resources of parents and adult children are strong determinants of child-to-parent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respondents were observed as strong determinants of caregiving or time. In addition, caregiving responds more to the health and income levels of parents whereas donated time is responsive to the net worth of parents and parents' status.

For adult children, gender is a strong determinant of both caregiving and time donation. The long-term health problem of adult children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of caregiving, while the employment status of adult children and the number of siblings have statistically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ime donated to care for the parents.

△주요어(Key Words) : 자원이전(resource transfers), 금융자산의 이전(financial transfers), 세대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돌보기 제공(caregiving), 시간 제공(time offered to paren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와 비교해서 공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상의 교육도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독립을 한 이후에도 결혼, 주택구입 등과 같은 가족 내의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부모에게 재정적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도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보다는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고 한다(MacDonald, 1989; Soldo & Hill, 1995). 그러나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하면서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의 부족과 수혜 시작 연령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어 성장한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사적인 재정적 지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노인들을 위한 공적인 소득보장제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적인 금융자산의 이전이 노인가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성장한 자녀가 노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빈번한 것과는 달리, 시간을 내어서 가사 일을 도와준다거나 (time of-

* 주 저 자 : 고선강 (E-mail : skoh@sungshin.ac.kr)

ferred to parent), 돌보기(caregiving)와 같은 인적자원의 이전은 성장한 자녀로부터 노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Freedman, Wolf, Soldo, & Stephen, 1991; Marks, 1996).

이와 같이 부모와 성장한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자원이 오고가는데, 이러한 자원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McGarry & Schoeni, 1995; McGarry & Schoeni, 1997)은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 교환이론의 상호호혜성이 부모자녀간의 자원이전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ox & Rank, 1992; Henretta et al., 1997).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가 자녀를 잘 지원했는지,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모가 도움을 주었는지 등이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자원이전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상호호혜성이 적용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child-to-parent financial transfer), 돌보기 제공(care-giving), 시간제공(time offered to parent)의 결정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현재의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확대가족 안에서 가계간의 자원이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신고전경제학파의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이 있다. 이타주의론은 Becker(1991)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가계가 아닌 가족을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로 본다. 이타주의론에서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데,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진다. 즉 '가'라는 사람의 복지증진(well-being)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용으로 '나'라는 사람의 복지가 증진될 때 '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타주의론의 가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족 안에 이타적인 가장이 있고 이기적인 가족구성원들이 있는데 가장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복지수준이 가장의 복지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족구성원들이 즐겁게 잘 살아야만 이타적 가장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는 경제효용함수로 이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장의 효용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구성원의 효용함수가 포함되는 것이다. 오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효용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면, 이타적인 가장의 복지수준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가족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Becker는 부모를 이타적 가장, 자녀들을 이기적 가족구성원으로 가정하여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설명하였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복지증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이타적 부모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시켜주면, 그 자녀의 복지가 증진되고 따라서 부모의 복지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

반면 교환이론에서는 기부자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이용해서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한다고 본다. 교환이론에서 상호호혜성은 개인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도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부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자산의 이전을 한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tonji, Hayashi와 Kotlikoff(1992)는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타주의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타주의론에서 경제생활의 결정단위를 개인 또는 가계가 아닌 가족(확대가족)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가족의 소비생활도 확대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제수준 보다는 가족전체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Altonji와 그의 동료들의 분석 모델에는 경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총소득, 노동소득, 주택의 자산가치, 시간당 임금이 포함되어졌고, 가계의 소비를 측정하는 지표로 식품소비가 포함되어졌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각자의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가계소비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소들로 나타났고, 이것은 확대가족내의 구성원들이 비록 다른 가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동일한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를 한다는 이타주의론의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경제생활의 결정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가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Bernheim, Shleifer와 Summers(1985)는 전략적유산상속 모델론을 주장하면서 교환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들의 모델은 부모는 유산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설에 바탕을 둔다. 즉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중 부모에 대한 배려와 관심정도가 높은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유산상속

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에게 더 잘 하는 자녀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자녀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이전이나 서비스에 대한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물려줄 자산이 있는 부모에게 더 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Longitudinal Retirement History Survey 자료분석을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은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자산보유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러 명의 성장한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부모가 물려줄 재산(주식, 채권, 부동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부모방문, 연락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연구들은 금융자산의 이전을 하는 사람과 그 것을 받는 사람의 경제상태를 이 두 이론을 검증하는 중요한 변수들로 사용하였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이타주의적 이론)과 부모가 나중에 자녀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여 경제적으로 더 나은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한다(교환이론)는 두 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 등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을 냈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III. 가족 내 세대간 자원이전의 유형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부의 재분배와 세습의 차원에서 가계간의 사적 자원 이전(private resource transfer)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세대간의 자원이전은 주로 금융자산의 이전, 즉 돈과 관련된 자원의 이전을 의미하고, 이 경우 자원이 오고가는 방향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사적인 금융자산이전의 주요 흐름이 나이든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가는 것이며, 특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흔한 사적이전의 형태로 알려져 왔다. "가계 간 이전(interhousehold transfer)" 이라고 하면 현금, 자산또는 눈에 보이는 자원들을 가계 간에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할 만큼 금융자산의 이전(financial transfer)이 대표적인 자원이전으로 여겨져 왔다(MacDonald, 1989). 그러나 최근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 특히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 사이의 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원이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변화하여 공간(동거), 시간(시간제공, 돌보기제공), 금전적자원(선물, 현금, 기타 금전적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원이전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원 이전(resource transfer)"은 가족구성원을 돕기 위한 특정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정서적지지, 금전적지지(선물, 돈 빌려주기 등), 도구적지지(쇼핑, 가사일 돕기, 개인

적인 돌보기 제공 등)를 포함한다(Marks & Lambert, 1997). 시간제공에 관한 경제학적인 접근의 연구는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제공한 시간의 길이에 관심이 있는 반면, 사회학적 접근의 연구는 제공한 시간의 내용과 질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가족원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관한 연구를 해온 Mark와 Lambert(1997)는 돌보기 제공자와 수혜자 간에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보기제공과 더불어 금전적인지지, 정서적지지 등의 다른 자원이전의 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하여 경제학적인 연구들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융자산의 이전에 관심을 가져왔고, 사회학적 연구들은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주어지는 돌보기 제공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는 자원이전의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를 대체하기도 하며, 한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의 이전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IV. 자원이전의 영향변수 고찰

1) 경제적 자원

가족 내 사적 자원이전 행동을 설명하는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가장 중심 고려대상이 되는 변수는 기부자와 수혜자의 경제적인 수준이다. 미국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융자산의 이전(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에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관심으로 삼았다.

McGarry와 Schoeni(1995)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분석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균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McGarry와 Schoeni (1997)는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의 분석을 통해서 성인자녀에게 주어지는 부모로부터의 금융자산의 이전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성장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을 추정하는 로짓(logit) 모델을 분석했는데 자녀의 소득이 낮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는 경향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McGarry(1999)는 최근연구에서 자녀의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부모로부터의 금융자산의 이전을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모델은 자녀의 현재소득, 자녀의 주택소유의 유무 그리고 평생소득의 대체변수로 교육정도를 포함한다. HRS와 AHEAD의 자료를 분석하여 자녀의 현재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녀일수록 평생소득의 대체변수인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Pezzin과 Schone (1999)도 친부모자녀와 양부모자녀 간의 자원이전 연구에서 AHEAD의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금융자산의 이전 수혜기회가 많고 그 금액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Cox (1987), Cox와 Rank(1992)의 연구는 성장한 자녀의 소득과 부모로부터의 금융자산의 이전 액수가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n Families and Households(NSFH) 자료분석을 통해서 수혜자의 노동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이전 액수와 금융자산의 이전 수혜 기회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는 교환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또한 MacDonald와 Koh(2003)는 최근 10년 간 한 가족 안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금융자산의 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소득수준이 부모의 금융자산의 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사회에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이전행동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부유할수록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이 적다는 것과 성인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하는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McGarry & Schoeni, 1995). Boaz 등(1999)은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는 자녀가 어떤 종류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가이며, 그 예로 자산소득이 많은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시간제공, 돌보기제공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임금율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Sloan 등(1997)은 미국의 National Long-term care survey를 분석한 결과 몸이 불편한 노부모에게 주된 돌보기제공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 중 자녀의 임금률은 돌보기를 제공하는 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다른 경제적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들(부모의 자산정도, 자녀의 자산정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분석한 Couch 등(1999)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미혼의 아들 딸, 기혼의 아들의 임금률과 부모를 위한 시간제공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

여러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제공되는 금융자산의 이전 행동의 영향력 있는 결정변수로 지목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고(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hone, 1999),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Cox & Rank, 1992; 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5).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이전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기 힘들었고, 반면 자녀의 교육수준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시간제공이나 돌보기제공을 결정짓는 주요변수임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자녀의 교육수준과 노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Henretta 등(1997)은 특히 한 가족 안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자녀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보다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교육수준은 임금률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임금률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결혼상태는 자원이전의 수혜자, 기부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금융자산의 이전에 있어서 가계의 소득과 부가 일정한 경우 결혼한 자녀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이 더 낮았다(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시간제공 돌보기제공에 있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된 돌보기 제공자의 역할을 하거나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고(Dwyer & Cowark, 1991; Sloan, Picon, Hoerger, 1997; Pezzin & Schone, 1999), 홀로 지내는 부모들이 결혼상태에 있는 부모들 보다 자녀로부터 시간제공을 받는 경향이 더 높다(Couch, Daly & Wolf, 1999; McGarry & Schoeni, 1995).

이와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지리적으로 가깝게 사는 것이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받거나(Cox & Rank, 1992; McGarry, 1997; McGarry & Schoeni, 1997), 돌보기를 제공하는데(Dwyer & Coward, 1991)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자녀에게 자녀(노부모의 손자)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 제공(Couch, Daly, & Wolf, 1999), 돌보기제공(Wolf, Freedman, & Soldo, 1997)의 기회가 적고, 성인자녀의 형제가 많을수록 주된 돌보기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적지만, 노부모의 입장에서 성인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시간제공이나 돌보기 제공을 받는 경향이 높았다(Dwyer & Coward, 1991; Sloan, Picon, & Hoerger, 1997; Wolf, Freedman, & Soldo, 1997).

이 밖에도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성별(Cox & Rank, 1992; Dwyer & Coward, 1991; Henretta et al., 1997; Marks, 1996;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chone, 1999), 성인자녀의 고용상태(Boaz & Muller, 1992; Marks, 1996),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건강상태(Couch, Daly, & Wolf, 1999; Dwyer & Cowark, 1991; McGarry & Schoeni, 1997; Sloan, Picon, Hoerger, 1997),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연령(Marks, 1996) 등이 확대 가족 내의 자원이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로 알려져 있다.

V.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child-to-parent financial transfer)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히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금융자산의 이전이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에 영향을 주는가?
2.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caregiving)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히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금융자산의 이전이 돌보기에 영향을 주는가?
3.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시간제공(time offered to parent)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히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금융자산의 이전이 부모에 대한 시간제공에 영향을 주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자료와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의 위스콘신종적연구조사(Wisconsin Longitudinal Study)이다. 위스콘신종적연구조사는 1957년에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시작하여 1965, 1975, 1992년까지 4차례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패널연구조사이다. 이 조사는 확대가족내의 자원이전에 관한 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계소득, 조사대상자 부모의 소득, 자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1957년과 1992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위스콘신종적연구조사의 조사대상자 중 적어도 한사람의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자녀' 또는 '성인자녀'이며, 조사대상자의 부모에 관한 정보도 조사대상자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 수는 2,663이었고, 분석단위는 조사대상자인 52세 된 성인자녀와 그의 부모이다.

(2) 주요변수의 측정과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표1에 제시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들은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돌보기 제공 유무, 시간제공 유무 등의 범주형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고려되어왔고 그 영향력이 인정되어 온 변인들 중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선별되었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		
변수 이름	정의 및 측정방법	평균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child-to-parent financial transfer)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한 금융자산의 이전의 유무이다. 조사대상자인 자녀가 성장한 후(1975년 이후)에 부모에게 미화 \$1,000 이상 가치를 지니는 현금, 부동산, 기타 자산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이 있는 범주(1)로 측정하였다. 연구표본의 3.3%가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3
돌보기 제공(caregiving)	조사 시점 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하거나 아픈 것으로 인한 개인적인 돌보기가 한 달 이상 제공된 경우를 돌보기가 제공된 범주(1)로 측정하였다. 연구표본의 7%가 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7
시간제공(time help)	조사 시점 전 한 달 이내에 교통, 잡다한 일, 가사일, 장보기, 정원관리, 수리 등과 같은 일을 부모에게 해준 적이 있으면 시간제공을 할 범주(1)로 측정하였다. 연구표본의 46%가 부모에게 시간제공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46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변수 이름	정의 및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는 표2에 제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s)	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준 금융자산의 이전의 유무이다. 조사대상자인 자녀가 성장한 후(1957년 이후)에 부모로부터 미화 \$1,000 이상 가치를 지니는 현금, 부동산, 기타 자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이전이 있는 범주(1)로 측정되었다.	
부모 특성	생존상태	조사대상자인 성인자녀가 부모의 생존여부를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양친 생존, 모 생존, 부 생존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령	조사대상자가 부모 연령에 대해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양친생존, 부 생존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을, 모 생존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을 사용하였다.
	건강상태	5점 척도로 구성된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우 좋다, 좋다, 양호하다', 또는 '안 좋다, 매우 안 좋다'의 나누어 구성하였다. 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이 '안 좋다 또는 매우 안 좋다'라고 답한 경우 '부모의 건강상태 안 좋음(1)'로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	실제 조사대상자의 부모 중 가장의 공교육을 받은 해수로 측정하였다.
성인자녀(조사대상자) 특성	결혼상태	현재의 결혼상태로 초혼, 재혼, 사별, 별거, 이혼, 미혼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건강상태	조사대상자가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상태인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공교육을 받은 해수로 측정하였다.
	취업상태	조사대상자가 취업한 상태(1)와 취업하지 않은 상태(0)으로 측정하였다.
	성별	여성(1), 남성(0)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수	자녀의 수	조사대상자의 자녀의 수로 측정하였다.
	형제 자매의 수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의 수로 측정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자산	1992년 자녀가 보고한 자녀의 연간 소득과 자산을 각각 4분위(quartile)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고, 참고범주는 1분위 범주이다. 부모의 연간 소득과 자산은 조사대상자인 자녀 또는 그의 형제가 보고한 자료에 기초하여 각각 4분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참고범주는 1분위 범주이다.	

VI. 결과 해석 및 논의

1.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

교환이론의 상호호혜성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된,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을 이전받은 경험'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이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자녀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는 확률이 낮았다. <표2>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부모의 소득이 네 번째 분위에 드는 경우(고소득층) 첫 번째 분위에 드는 부모들(저소득층)에 비해서 자녀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은 범주에 들 확률이 8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산 보유 정도가 높은 경우도 자산 보유 정도가 낮은 경우와 비교해서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적 이타주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산 정도에 반비례해서 자녀들이 금융자산의 이전을 하는 것은 부모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의 필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자녀의 금융자산의 이전 행동이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요구보다는 재정적 필요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의 소득, 자산 수준과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자녀의 재정적인 지불능력이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자녀의 소득이 최상위 분위에 들어간 경우 최하위 분위와 비교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하는 범주에 4배 정도 높은 확률로 들어가고(odds ratio=4.601), 자녀의 자산이 상위(세 번째 네 번째) 분위에 들어가는 경우 최하위 분위와 비교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한다'는 범주에 2.4배에서 3배까지의 높은 확률로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다(odds ratio=2.432, 3.149).

성인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결혼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가 성인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금융자산의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성인자녀가 미혼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초혼상태에 있는 경우 보다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할 확률이 더 높았다. 성인자녀의 소득, 자산 등의 경제적인 자원을 통제했을 때, 성인자녀가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기혼자 보다 좀더 자유롭게 부모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의 경우 건강문제가 없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들에 비해서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을 한 성인자녀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할 확률이 적었

다.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있는 성인자녀들이 부모에게 금융자산 이전을 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장기적인 건강문제(고혈압, 당뇨 등)가 있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성장한 후에 금전적으로 부모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장기적인 건강문제 때문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해 보면 그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금융자산의 이전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 중년의 자녀가 노 부모에게 주는 금융자산의 이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금융자산의 이전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과 시간 제공

돌보기 제공과 시간 제공은 모두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지속적이고, 개인적이고, 강도 높은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고, 후자는 일회적이고, 일상생활의 과업을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이전을 분석하는 모형을 각각 만들었고, <표2>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자원이전의 상호호혜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인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을 이전 받은 경험'이 부모 돌보기 제공과 시간 제공을 결정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 부모 돌보기 또는 가사 일을 도울 시간을 제공할 확률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자녀들 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족 내의 형제자매들 중 누가 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할 것인가를 연구한 Henretta(199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 중 두 번째 소득 범주(\$25,000 ~ \$49,999)에 드는 부모들이 첫 번째 소득범주에 드는 부모들과 비교했을 때 자녀로부터 돌보기를 제공받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소득을 갖는 부모들은 돌보기가 필요할 때 정부의 공적부조로 제공되는 혜택(예, Medicaid)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보기를 제공할 필요가 적어지고, 높은 소득을 갖는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돌보기를 제공받기보다는 직업적으로 돌보기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에 중간 소득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에게 돌보기를 제공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자산 보유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녀들의 돌보기 제공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과는 정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미래에 돌아올 금전적 보상을 겨냥하여 돌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자산 보유 정도가 세 번째로 높은 범주에 드는 경우 최

<표 2>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대한 분석 결과

(n=2,653)

종속변수	평균(표준편차)	금융자산의 이전		돌보기 제공		시간 제공	
		B	S.E.	B	S.E.	B	S.E.
부모로부터 금융자산 이전을 받은 경험(있음)	0.21	-.422	.338	.498	.185***	.318	.104***
부모 특성							
생존 상태							
양친 생존(참고범주)	0.29						
모 생존	0.60	-.190	.273	.413	.210*	.038	.096
부 생존	0.11	-.351	.428	.324	.287	-.387	.144***
연령							
75세 미만(참고범주)	0.12						
76세-80세	0.35	-.360	.357	.465	.384	.124	.137
81세-121세	0.53	-.440	.351	1.119	.365***	.581	.135***
건강상태(상태 나쁨)	0.19	-.113	.295	1.027	.176***	.006	.105
교육수준	10.02(3.38)	.045	.036	-.021	.026	-.028	.013**
부모의 경제적 자원							
소득							
\$24,999이하(참고범주)	0.68						
\$25,000이상 \$49,999이하	0.19	-.196	.349	.490	.227**	.052	.114
\$50,000이상	0.05	-1.853	1.064*	.474	.359	-.247	.200
무응답	0.08	.235	.557	-.386	.414	-.354	.183*
순 자산							
\$999이하(참고범주)	0.13						
\$1,000이상 \$24,999이하	0.15	-.426	.345	-.017	.297	.206	.156
\$25,000이상 \$99,999이하	0.33	-1.252	.331***	-.154	.262	.260	.137*
\$100,000이상	0.30	-1.804	.404***	-.096	.294	.221	.152
무응답	0.09	-1.619	.638**	.009	.360	.309	.191
성인자녀(조사대상자)의 특성							
결혼상태							
초혼(참고범주)	0.70						
재혼	0.14	.130	.344	.095	.250	-.226	.121*
별거, 이혼, 사별	0.12	1.293	.337***	.284	.256	-.300	.133**
미혼	0.04	1.156	.521**	.635	.363	.282	.227
건강상태(장기적 건강문제 있음)	0.25	.651	.246***	.590	.174***	-.028	.094
교육수준	13.56(2.24)	.149	.053***	-.090	.046**	-.029	.021
취업상태(취업)	0.86	-.618	.324*	-.030	.229	-.247	.121**
성별(여성)	0.53	-.344	.243	.766	.183***	.236	.084***
자녀의 수	3.01(1.70)	-.023	.079	-.068	.054	.023	.026
형제자매 수	2.92(2.11)	.056	.055	-.110	.045***	-.081	.020***
성인자녀의 경제적 자원							
소득							
\$29,999이상(참고범주)	0.21						
\$30,000이상 \$49,999이하	0.27	.311	.447	-.077	.245	-.065	.122
\$50,000이상 \$75,999이하	0.26	.513	.484	.099	.273	-.145	.135
\$76,000이상	0.26	1.526	.463***	.256	.298	-.142	.149
순자산							
\$74,999이상(참고범주)	0.23						
\$75,000이상 \$149,999이하	0.26	.648	.451	-.128	.249	.166	.120
\$150,000이상 \$299,999이하	0.24	.889	.453*	.213	.252	.202	.128
\$300,000이상	0.25	1.147	.460**	-.065	.290	.211	.139
무응답	0.02	.864	1.104	.785	.538	-.092	.314
상수항		-5.657	.994	-3.096	.805	.221	.374
-2 log likelihood (null model)			772.52		1305.57		3666.28
-2 log likelihood (fitted model)			652.73		1160.83		3539.20
Model Chi-square			119.79		144.74		127.08

*p < 0.1, **p < 0.05, ***p < 0.01

하위의 범주에 드는 부모와 비교해서 자녀로부터 시간 제공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부모의 생존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부모 모두 생존에 있는 경우 보다 홀로 사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로부터 돌보기를 제공받을 확률이 더 높고, 홀로 사는 아버지의 경우는 시간제공을 받을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부모의 성에 따라, 돌보기 또는 시간제공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주된 돌보기 제공자가 주로 딸이며, 돌보기를 받는 부모의 경우 같은 성을 가진 자녀로부터 돌보기를 제공받기를 원한다(Marks, 1996)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돌보기 제공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머니가 딸에게 돌보기를 제공받는 것을 아버지가 딸에게 받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 홀로 생존에 있는 경우 양친 모두 생존에 있는 경우보다 자녀로부터 시간 제공을 받을 확률이 약 33% 적다는 결과(odds ratio=0.679)도 어머니-딸의 관계의 친밀성이 아버지-딸의 관계의 친밀성보다 더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돌보기 제공의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시간제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한 부모를 가진 성인자녀 보다 2.7배나 더 돌보기 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odds ratio=2.793). 부모의 연령이 81세 이상인 경우 75세 이하인 경우에 비해서 자녀가 돌보기 제공이나 시간제공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딸인 경우에 아들인 경우 보다 두 배정도(odds ratio=2.150) 더 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할 확률이 높고, 자녀들의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돌보기나 시간제공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 돌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취업 상태인 경우 초혼상태인 자녀와 비교해서 재혼,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 부모에게 시간제공을 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많다는 것은 노부모에게 시간과 노동력 제공을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제자매의 수와 성인자녀의 돌보기 또는 시간 제공의 가능성은 반비례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인자녀의 자녀(노부모의 손자녀)의 수를 통제하면 초혼상태에 있는 성인자녀 보다 이혼, 별거, 사별의 상태에 있는 성인자녀의 가용 시간자원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부모에게 시간제공을 할 확률도 적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child-to-parent financial transfer), 돌보기 제공(caregiving), 시간제공(time offered to parent)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특히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금융자산의 이전이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위스콘신종적 연구(Wisconsin Longitudinal Study)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과거에 제공한 금융자산의 이전이,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돌보기제공 또는 시간제공을 촉진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교환이론의 상호호혜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때,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 풍족할 때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금융자산 이전을 받은 경험이 근래의 시간제공이나 돌보기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 안에서 행해지는 자원 이전행동의 상호호혜성이 뒷받침되었다. 즉 부모로부터 과거에 받은 것에 대해 같은 형태의 자원제공을 통해서만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도 보답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는 자원제공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자의 가용자원의 정도 수혜자의 요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전 행동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의 자원이전행동의 포괄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몇 가지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금융자산의 이전(Child-to-parent financial transfer), 돌보기제공(caregiving), 시간제공(time offered to parent)을 측정된 기간을 모두 다르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또한 금융자산의 이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미화 \$1,000 이상의 현금, 부동산, 기타 자산이 기부된 경우만을 '금융자산의 이전이 있는 상태'로 판정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소액 금융자산 이전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자원이전행동을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호호혜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제공된 금융자산의 이전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이전 여부가 회상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한계점을 갖는다. 가족 내의 자원이전행동의 상호호혜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을 위해서 금융자산의 이전 뿐 아니라 돌보기제공, 시간제공, 주거제공 등의 패널조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호혜성을 검증하는 변수로 금융자산의 이전 뿐 아니라

다른 자원이전 변수들(돌보기제공, 시간제공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가족 내의 자원이전행동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의 이전은 구체적인 금액을, 돌보기제공과 시간제공은 실제 사용한 시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깊이 있는 가족 내 세대간 자원이전행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접수 일 : 2004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1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2월 03일

【참 고 문 헌】

- Altonji, J. G., Hayashi, F., & Kotlikoff, L. J.(1992). Is the extended family altruistically linked? Direct tests using micro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177-1198.
- Becker,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Cox, D. & Rank, M. R.(199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Dunn, T. A., & Phillips, J. W.(1998).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childrens income* (Aging Studies Program Paper No.14).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Maxwell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nomics of Aging.
- Freedman, V., Wolf, D. A., Soldo, B. J., & Stephen, E. H. (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1, 640-647.
- Henretta, J.C., Hill, M.S., Li, W., Soldo, B.J., & Wolf, D. A.(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MacDonald, M. M.(1989). *Family Background, the Life Cycle, and Inter-household Transfers* (NSFH working paper No. 13).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Macdonald, M.M. & Koh, S.(2003).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1), 73-98.
- Marks, N. F.(1996). Caregiving across the lifespan: National prevalence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5, 27-36.
- Marks, N. F. & Lambert, J. D.(1997). *Family caregiving: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SFH working paper No. 78).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McGarry, K.(199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Pezzin, L. E., & Schone, B. S.(1999).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 analysis of lone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4, 297-297.
-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P. G. Boss, W.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385-411). New York: Plenum Press
- Sloan, F. A., Picone, G., & Hoerger, T. J.(1997). The supply of childrens time to disabled elderly parents. *Economic Inquiry*, 35, 295-308.
- Soldo, B. J., & Hill, M. S.(1995). Family structure and transfer measures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Background and overview.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08-137.
- Tomes, N.(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28-968.